

전북특별자치도 - 풀무원 - 익산시

푸드테크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육성 손 잡다

연구지원센터 중심 대기업-중기-농가 동반성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 (주)풀무원과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육성에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주)풀무원, 익산시는 19일 서울 풀무원 본사에서 '푸드테크 식물성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효율 (주)풀무원 총괄CEO와 정현을 익산시 시장,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이 참석했으며,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육성 방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가 이뤄졌다. 최근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식량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문제 등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대체식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익산시, (주)풀무원은 식물성 대체식품분야에서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실증 및 사업화 △대기업-중

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푸드테크분야 신기술 및 글로벌 동향 정보 공유 등 향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얼라이언스 소속 중소기업, 농생명기관 간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상생협력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푸드테크 산업의 대기업-중소기업-농가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해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풀무원은 미래지향적 식품분야의 대표기업으로 2022년 8월 지속가능한 식품 전문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을 론칭하고 창사 39년만에 처음으로 가수 이효리를 모델로 발탁하는 등 미래먹거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식품분야 글로벌 톱5기업(국내1위)에 선정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주)풀무원, 익산시는 19일 서울 풀무원 본사에서 '푸드테크 식물성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농기계교육 핵심거점 '자리매김'

최근 3년간 농기계교육 1876명 이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도내 농업현장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농업기계 기술인력 양성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자체적으로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별 만족도를 조사해 선호도가 높은 과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농기계교육은 트랙터운전 등 매년 10여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876명이 이수했고 만족도 또한 90점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중 선호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면허(총4기), △트랙터운전(총6기), △귀농인 농기계임용(총3기) 과정 등은 다른 교육과정과는 달리 연간 3~6기까지 운영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첨단 농기계 작업시대에 맞게 자율주행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자율주행장비 구입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자율주행 농작업 교육 과정은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이앙기 등의 조향장치를 자율주행 조향장치로 교체

하여 무인 상태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자율주행 농업기계로 농작업을 수행할 경우 핸들 조작없이 초보 농업인도 손쉽게 작업해 숙련된 전문 농업인들 수준의 작업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선도해 나갈 교육과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태수 전북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농업도 자율주행 농기계 등 스마트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내 농민들의 일손부족과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활용을 높이는 양질의 교육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올해 교육과정은 최근 재신축한 '농산기계교육관(건축기간 : 2023.1~2024.2월)'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농기계교육은 총 11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식품인력개발원 누리집(agriacademy.jonbuk.go.kr)에서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교육실시 전달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자치도, 상수도 인프라 확대로 물복지 실현

올해 1017억원 투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노후 상수도 정비 및 옥내 급수관 개선 등 시설 개량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상수도 분야 사업비 1,017억원을 투자해 도민들의 물복지 향상 및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14개 지역에 관로 84km를 신규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3개 도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상수도 수량 부족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상연계관로 5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속적인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급수보급률 99.8%, 농어촌지역 급수보급률 92%로 전국 도단위 지역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달성하고 있

다. 한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마실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548개 시설에 대해 2030년까지 387개소를 광역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기술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0개소의 시설에 대해 관로와 물탱크 등의 시설개량도 병행할 계획이다.

상수도 보급뿐만 아니라 녹물발생과 이물질 유입을 예방하고 누수저감을 통해 상수도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까지 진안, 무주, 정수, 고창, 부안 등 5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관정(유수율 85%이상)을 통과했으며, 올해에는 9개 시군이 사업완료와 성과관정을 준비하고 있어 누수저

감과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지속적인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준비 중으로 2025년 신규사업 대상에 선정과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해 녹물, 이물질 등 수질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2023년 3월 조례를 제정해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493세대의 옥내 급수관을 개선하고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상수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 전북자치도, 3000만원 전달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재해구호기금 3,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 충남도와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함께 성공을 다지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화재복구 지원에 흔쾌히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 변경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시설복구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구호자금으로 전 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충남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에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특화시장 복구와 빠른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갑작스런 화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 개선 추진

2024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7개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17개 시설에 총 19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거주시설, 주간에 일시 보호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의 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장애인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기능보강은 전기배선 교체, 외벽 개보수,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노후화된 전기 시설 및 화재 시 위험성이

높은 마감재를 교체해 화재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훈련, 장애인 생상품 판매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작업장 증축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한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확대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